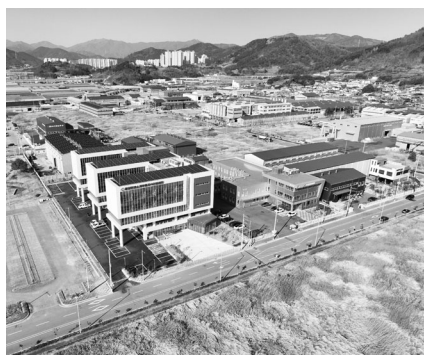
광양만권 소재부품 지식산업센터, '미래 허브' 박차

개소 초기 입주율 100% 달성
우수한 접근성·저렴한 임대료
이차전지·첨단소재 입주수요 ↑
입주기업 대상 맞춤 지원 총력



광양만권 소재부품 지식산업센터 전경. 광양시 제공

전라남도 광양만권 소재부품 지식산업센터가 개소 초기임에도 불구하고 전실 분양을 완료하면서 혁신과 협력이 공존하는 미래형 산업 허브로 발돋움 하고 있다.

9일 광양시에 따르면 익신일반산업단지에 위치한 지식산업센터는 남해고속도로와 인접해 있고 광양항 부두, 세풍·율촌산단과도 가까워 물류 및 교통 측면에서 탁월한 접근성을 자랑한다.

특히 3.3㎡당 8970원의 저렴한 임대료는 타 지자체 유사 시설 대비 경쟁력이 높아 자금 여력이 부족한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에게 안정적인 성장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

현재 센터에는 나트륨 이온전지를 개발하는 ㈜에버인더스, 배터리 재제조 및 양·음극재를 생산하는 ㈜에이비알 등 이차전지 관련 기업 5개 사를 중심으로 한 차세대 에너지산업의 기반이 탄탄히 구축돼 있다.

이 외에도 레이저클래딩, 자동화 장비, 디지털 트윈, 소프트웨어 개발, 환경·안전 등 다양한 분야의 혁신 중소·벤처기업 23개 사가 입주해 향후 산업 간 융복합을 통한 시너지 창출이 기대되고 있다.

센터에는 지역 청년 인재와 첨단소재 분야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체계도 구축돼 있다.

국립순천대학교가 센터 내에서 운영 중인 첨단소재 광양캠퍼스는 지역 청년 인재와 첨단소재 분야 전문 인력 양성을 통해 지역, 기업, 대학이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지산학 협력 모델의 모범 사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센터는 단순한 업무 공간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입주기업 간 소통과 협업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회의실과 커뮤니티 공간도 함께 갖추고 있다.

시는 향후 라운지와 휴게 공간 등을 추가로 조성해 기업 간 네트워킹 기회를 더욱 확대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입주 만족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광양시는 지식산업센터를 기반으로 전남형 청년창업사관학교, 광양시 중소기업 기술사업화 지원사업, 벤처지원단 기술지원 프로그램 등 다양한 기업 지원정책도 적극 매칭하고 있다.

초기 창업기업은 물론 성장 단계의 중소기업이 자금 조달과 기술 솔루션 지원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강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지원에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이현성 광양시 신산업과장은 "광양만권 소재부품 지식산업센터는 단순한 기업 입주 공간을 넘어 기업이 성장하고 교류하며 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구심점이 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입주기업의 안정적 성장과 정착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아끼지 않고, 지산학 협력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광양=안영준 기자

고흥군, 동일면 권역단위 거점개발 일반농산어촌개발 신규 공모 선정

전라남도 고흥군은 해양수산부가 주관한 '2026년 어촌분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신규 공모에서 동일면 권역단위 거점개발사업이 최종 선정됐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국비와 지방비를 포함해 총 44억원 규모로 추진되며, 동일면 주민들이 소재지에 필요한 사업을 직접 발굴하고 필요성과 타당성을 인정받아 선정된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국도 15호선을 이용하는 방문객들이 동일면의 아름다움을 체험하고 관광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한편, 주민들이 소통하고 교류할 수 있는 공간 마련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동일면 권역단위 거점개발사업의 주요 사업으로는 주민 커뮤니티 공간 역할을 할 '동일 어울림센터' 신축과 백양리 소재지 내 안전한 보행환경을 위한 보행로 설치 등이 포함된다.

군은 해양수산부로부터 기본계획 승인을 받은 후 하반기 시행계획과 실시설계를 수립해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고흥=심정우 기자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여수시, 수강생 210명 선착순 모집

전라남도 여수시가 하반기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수강생 210명을 선착순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해당 교육은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으로, 학원·어린이집 등 13세 미만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는 시설의 종사자는 매년 응급처치 실습을 포함한 4시간 이상의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교육은 오는 9월18일 여수문화홀에서 진행되며, 실제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도록 응급상황 행동 요령, 주요 내·외과적 응급처치 이론, 영아·유아·소아 대상 기도 폐쇄 대처 및 심폐소생술 실습 등으로 구성된다.

교육 신청은 한국보육진흥원 통합 온라인교육시스템(lms.educare.or.kr)을 통해 가능하다.

여수=이경기 기자

지난 5일 장흥군 천관문학관 일원에서 진행된 '3대 가족정원 만들기' 행사에서 참가자들이 수국을 심고 있다. 장흥군 제공

장흥군, 세대가 소통하는 '3대 가족정원 만들기'

전라남도 장흥군은 지난 5일 천관문학관 일원에서 'The 푸른 전남만들기' 실현과 세대 간 소통 문화 확산을 위해 '3대 가족정원 만들기' 행사를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사)숲속의전남이 주관하고 전라남도와 장흥군이 후원했다. 행사에 참여한 3대 가족과 숲속의 전남 회원, 지역주민 등 150여명은 가족 사랑과 노벨문학도시 장흥 발전의 의미를 담아 수국정원을 조성하고 가족 이름표를 달았다.

참석자들은 꽃 하나하나는 작지만, 여러 개가 모여 탐스러운 꽃다발을 이루는 수국처럼 조부모, 부모, 손자·손녀가 함께 가족의 행복을 기원하는 수국 1680여 그루를 심었다.

행사 후에는 자발적으로 나무를 심고 가꾸는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동백, 홍가시 등 묘목 200여 그루도 나눠줬다.

김성 장흥군수는 "효의 사랑, 공존의 의미가 깃든 살아 있는 정원"이라며 "장흥이 문학과 정원이 공존하는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주민이 중심이 되는 녹색문화 실천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흥=김전환 기자

보성군 '차와 지역문화의 만남' 전 장르 대상 참여 작가 공모

전라남도 보성군이 오는 16일까지 '차(茶)와 지역문화의 만남'을 주제로 한 2025년 하반기 한국차박물관 기획 전시 작가를 공개 모집한다.

9일 보성군에 따르면 이번 공모는 차문화 중심지로서의 보성의 정체성을 문화예술로 확장하기 위한 사업으로, 보성 차(茶)문화를 창작 소재로 한 시각예술 전시를 준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모집 대상은 보성 관내외의 예술가 또는 단체, 차문화를 계승·활성화하고 있는 차인 단체 및 다원 등으로, 다양한 장르의 작가가 참여할 수 있다.

모집 분야는 회화, 조각, 공예, 사진, 서예, 문학, 비디오아트, 유물 전시 등이며, 전시 작품 중 최소 30% 이상은 차(茶)와 관련된 내용이어야 한다.

또 작가가 직접 해설자로 나서는 '차와 예술의 만남-도슨트 프로그램'도 운영될 예정이다. 이는 사전 신청자에 한해 참여가 가능하다.

전시는 오는 8월부터 12월까지 한국차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6차례에 걸쳐 차례대로 진행된다. 회차별 전시 기간은 평균 19일이며, 총 6명의 작가 또는 단체가 선정될 예정이다.

공고 및 접수는 오는 16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되며, 선정 결과는 17일 전후로 발표된다.

보성=양종수 기자

여수시, '레지오넬라증 예방' 여름철 다중이용시설 점검

전라남도 여수시는 레지오넬라증 발생이 증가하는 여름철을 맞아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수질·환경 검사를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시는 대형건물, 종합병원, 요양병원, 대형목욕탕, 숙박업소, 분수대 등의 수질관리 설비를 점검해 레지오넬균 검출 여부를 살피고, 균이 검출된 시설은 청소·소독 등 위생 지도를 통해 개선 후 재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제3급 법정감염병인 레지오넬라증은 레지오넬균 감염에 의한 급성 호흡기 질환으로, 오염된 냉각탑수, 급수시설, 샤워기, 분수 등에서 서식하는 균이 비말을 통해 인체에 흡입되면 발열과 기침, 오심, 구토, 복통, 호흡곤란 등의 증상을 일으킨다. 대부분 2~5일 후 호전되지만, 만성폐질환자, 흡연자 등 고위험군은 폐농양, 호흡부전, 신부전 등의 합병증이 나타나기도 하며 심한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여수시보건소관계자는 "레지오넬라증 예방을 위해서는 냉각탑수, 급수시설 등의 철저한 소독관리가 필요하다"며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안전한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여수=이경기 기자

고흥군, 하반기 청년 행정인턴 모집

미취업 청년 70명 대상

전라남도 고흥군은 청년들에게 진로 탐색과 행정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25년 하반기 청년 행정인턴 70명을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선발된 청년들은 군청, 읍·면사무소, 지역아동센터 등에 배치돼 행정, 현장, 복지 업무를 보조하게 되며 이를 통해 실무 능력을 키우고 공공부문에 대한 경험을 쌓을 수 있다.

모집 대상은 2025년 6월2일 기준 고흥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18세~26세의 미취업 청년이다.

우선 선발 기준은 최초 신청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한부모가정 자녀, 국가유공자 자녀 순이다. 신청 인원이 모집 정원에 미달할 경우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이 낮은 순으로 일반 선발이 진행된다.

다만 공고일 기준으로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정부 및 지자체의 유사 사업 참여자, 고등학교 재학생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무 기간은 오는 7월7일부터 8월14일까지, 1차(7월7일~23일), 2차(7월29일~8월14일)로 나뉘며, 차수별 13일간 주 5일, 1일 8시간(오전 9시~오후 6시) 근무하게 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청년은 관련 서류를 갖춰 오는 13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직접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최종 선발 결과는 오는 30일 고흥군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고흥군 관계자는 "이번 청년 인턴 사업은 행정 현장을 직접 경험해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라며 "진로 탐색에 도움이 되고, 군정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고흥=심정우 기자